

수출 7.5% 감소... 에너지 수입 증가에 1년째 '무역적자'

산업부, 2월 수출액 501억 달러
반도체 가격 하락에 수출액 급감
자동차·이차전지 등은 수출 증가
미국 등 9대 수출지역 증가 전환
중국수출 98.8억 달러로 24% ↓



지난달 수출이 전년대비 7.5% 감소하는 등 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 효과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의 반도막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도 9개월째 이어진 영향이 컸다. 반면, 에너지 수입은 증가하며 무역적자는 1년째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수출은 501억달러로 전년동월(541.6억달러) 대비 7.5%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영향이다. 전년동월 수출이 역대 2월 중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수출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줬다. 다만, 2월 수출은 전달(1월, 463억달러) 대비 약 40억 달러 증가하며 월 수출규모는 500억달러대를 회복했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정보통신) 품목 위주

로 수출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이차전지·석유제품·일반기계 등은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모든 월 기준 최대, 이차전지 수출은 2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일반기계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59억6000만달러 수출에 그쳐 1년 전보다 42.5% 감소해 반도막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반도체 내 수출비중이 큰 D램 고정가격의 경우 지난해 1분기 3.41달러에서 하락을 지속하며 올해 1~2월 1.81달러까지 떨어졌다.

또, 디스플레이(11.2억달러, -40.9%), 석유화학(40.6억달러, -18.3%), 철강(29.7억달러, -9.8%), 선

박(15.5억달러, -10.7%), 바이오헬스(10.7억달러, -32.1%) 등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반면, 자동차(56억달러, +47.1%), 석유제품(46.8억달러, +12.0%), 일반기계(44.5억달러, +13.0%), 차부품(20.2억달러, +13.3%), 이차전지(8.7억달러, +25.1%) 등 수출은 증가했다.

9대 주요 수출 지역 중 미국(90억달러, +16.2%), 유럽연합(62억달러, +13.2%), 중동(16.5억달러, +20.2%), 인도(15억달러, +11%)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미국은 지난 달 감소 이후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됐고,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중동 수출 모두 두 자릿수 증가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영향으로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98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4.2% 급감했다. 아세안(84.6억달러, -16.1%), 일본(23.6억달러, -4.9%), 중남미(18.5억달러, -19.1%), CIS(독립국가연합, 10.5억달러, -13.6%) 수출 역시 감소했다.

2월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19.7%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3.6% 증가한 554억달러다.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은 153억달러로, 최근 10년(2013년~2022년)의 2월 평균(97억달러)보다 56억달러 많다.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원유 수입은 전년대비 근소한 차이로 줄었지만, 동절기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가스 수입이 73.2% 급증한 영향이다.

무역적자는 53억달러 적자로 작년 3월 이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에너지 외 수입 규모 축소,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무역적자 규모는 1월(127억달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월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주요국 수입수요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동절기 수요에 따른 에너지 수입이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하면서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1월에 비해 적자규모가 축소됐지만 큰 폭의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만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고금리, 글로벌 경기둔화 등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확정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는 등 총력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전기·가스료 인상에, 소비자물가 더 오른다

현경연, 관리물가로 본 고물가 현상
1월 관리물가 상승률 전년비 5.8% ↑
물가상승률 5.0%→5.2% 반등시커

최근 전기·가스요금 등이 줄줄이 오르는 등 관리물가 상승세로 인해 고물가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정부 전망과 상반된다.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통제에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점진적인 가격 인상과 조정 등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고물가 현상 언제까지 지속되나? 관리물가로 본 고물가 현상’에 따르면 1월 관리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8%로 추산된다. 이는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인 5.2%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관리물가가 전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다.

관리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1년 하반기

기 플러스 전환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같은 관리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전체 물가 불안 현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올 1월 관리 품목의 물가 상승률 기여도가 1.1%포인트에 달해 물가상승률을 전월 5.0%에서 5.2%로 반등시켰다고 설명했다.

노시연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연내 전기료, 도시가스, 시내버스비 등 관리 품목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관리물가 상승 폭은 확대될 전망으로,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3.9~4.4%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의 전망은 올 상반기에 고물가가 지속되다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정부 예상과 대비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2일 “상반기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상방 압력이 있을 때보다는 다른 품목의 안정세가 있을 때 공공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시 국민 부담을 우선 고려하겠다”면서도 “향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기·가스요금 등 관리 품목이 추가 인상될 수 있는데다 최근 안정된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관리 품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다시 반등할 경우 물가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진단이다.

연구원은 관리 물가가 전체 물가 불안을 가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계획적인 사전 관리를 주문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관리 품목 중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받는 품목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에너지 가격 예측력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물가 통제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가격 동결보다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가격 인상, 품목별 가격 조정 시기 분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won@

점유율 1.1% 폴더블폰, 성장 가능성은 커

» 1면 ‘삼성이 접으니 다 접는다’서 계속

해당 기술은 화면뿐만 아니라 기기 여러 부분을 터치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지난달 애플 분석 전문가인 대만 TF인터내셔널증권의 귀밍치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2024년 폴더블 아이폰, 2025년 폴더블 아이패드 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폴더블 아이폰을 통해 시장 분위기를 파악·분석하고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겠다는 전략을 펼칠 거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는 애플이 2024년 폴더블 아이폰, 2025년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폴더블 아이폰을 통해 시장 분위기를 파악·분석하고 폴더블 스마트폰을 내놓겠다는 전략을 펼칠 거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1.1% 수준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 지배적이다. 이런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82%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폴더블 시장 공세가 강한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20% 환급

산업부, 가구당 최대 30만원 한도
장애인·국가유공자 가구 등 대상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20% 환급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을 2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절약과 효율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효율 혁신 투자 촉진을 위한 융자 지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래 목적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21~2022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자체 예산을 활용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고효율제품 구입 가격의 10%,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사업이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전체 예산(139.2억원)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대상 가구는 장애인(기준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

〈품목별 최고등급 적용기준일〉

품목	등급	적용기준일	
냉장고	1	'18.4.1./'21.10.1	
김치냉장고	1	'17.7.1.	
에어컨	벽걸이	1	'18.10.1./'21.10.1
	그 외	1~3	
세탁기	일반	1~2	'18.7.1./'21.10.1
	드럼	1	
냉온수기	저장식	1	'18.1.1.
	직수식	1	'18.1.1.
전기밥솥	1	'18.4.1.	
진공청소기	1~3	'19.1.1.	
공기청정기	1	'18.1.1./'20.3.1	
TV	1	'17.1.1./'21.10.1	
제습기	1	'16.10.1.	
의류건조기	1	'20.3.1.	

* 제품의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상기 적용기준일 이후인 경우만 지원. /산업부

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다. 환급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등 11종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 대상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포털 검색창에 ‘고효율 가전 환급’)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전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의제 구역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 내 대상 가구는 해당지역 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사업은 사업 재원이 소진될 경우 연말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 연간 약 8GWh의 에너지절감(약 4인기준 2100가구의 1년 전력사용량) 효과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